

## 고교생의 학교계열,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몰락의 매개효과\*

최 아 론<sup>†</sup>

이 영 순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고교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락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계열별로 생활스트레스와 인지적 몰락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라북도 내 4개시의 8개 고등학교 856명(인문계 294명, 실업계 319명, 예술계 24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매개효과 검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 및 자살사고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몰락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열별 다집단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완전매개모형의 구조는 모든 계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계열별로 인지적 몰락을 유발하는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에는 차이를 보였으나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연구 및 자기파괴 행위에 인지적 몰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계열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접근방식을 달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주요어 : 고교생, 학교계열,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

\* 본 연구는 최아론(2011)의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최아론, 전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Tel : 063-270-2925, E-mail : aron0924@naver.com

통계청(201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표현 될 정도로 심각한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의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 당)은 31.0명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했고 이 수치는 1999년 대비 107.5% 증가한 수치이며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청소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국내 초·중·고교 학생 자살 건수는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에는 2008년보다 47%나 급증한 202명이 자살하였으며 이는 고등학생이 69%(140명) 중학생이 28%(56명) 초등학생이 3%(6명)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다면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이 아동청소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자살예방 사업과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자살 인구가 늘어가면서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방면의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자살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요인은 우울이며 우울을 발생시키는 주요 변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무망감, 절망, 인지적 와해 등과 같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며(김은정, 2002; 임숙빈, 2002; 홍영수, 2004; 황영순, 2003), 자살한 청소년들이 죽음 직전에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통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rtzky 2005; 이윤주 2007에서 재인용).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Hirsch & Ellis, 1996; Pillay & Wassenaar, 1997)이 확인되면서 스트레스와 자살위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Chang, 2002; Sandin, Chorot, Santed, Valiente, & Joiner, 1998). 이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인 생활스트레스가 청소년 자살사고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변인임을 지지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살한 청소년 14명 중 9명이 자살 당시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우울감, 절망감이 자살생각과 연관이 있으며(이삼연, 2000),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 절망감이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민섭 등, 1990).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한 것인데 그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자원을 초과하며, 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발생사건의 빈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대한 생활사건(major life events)과 일상적 생활사건(minor life events)으로 구분되어져 왔다(Lazarus & Folkman, 1984). 중대한 사건이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자신의 갑작스런 질병 등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말하는데, 초기 스트레스 연구는 중대한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Lazarus와 Folkman(1984)은 중대한 생활사건 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심리적 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았으며, 임숙빈(2002)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중대한 사건보다 개인의 심리적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때 나타나는 급속한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및 사회적 변화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홍영수, 2004). 또한 부모

들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됨으로써 그 기대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갖은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국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한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 그 결과 일탈행동이나 사회 심리적 부적응 및 심지어 자살행동의 가능성도 크게 나타난다(우선유, 1999). 또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교 관련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문제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자살 생각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지연, 2004). 경남지역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재홍, 윤경란(2007)의 연구에서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 중 자기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는 설립 목적에 따라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내용과 진로결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계열에 따른 스트레스 비교연구와 자살사고 비교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고등학교 계열선택 요인 중 인문계는 대학진학을 예술계는 예술 분야에서의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업계 고등학생의 계열선택의 요인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성적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실업계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은경, 2000). 이러한 요인은 실업계 학생들의 낮은 수준의 진로의식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인

문계의 경우 대학진학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에 비해 학습시간이 많지만 예술계의 경우 입학 시점부터 세부전공까지 정한 후에 진학을 하게 되어 전공이 결정된 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계열선택 요인과 학교설립 목표의 차이는 고등학생들이 계열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교계열에 따른 스트레스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희(2007)는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공부문제와 가정문제, 취미 및 오락, 신체적 건강 및 용모, 심리적 및 성격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전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계열에 따라 자살위험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에서는 실업계열 고등학생이 인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하여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강은실 등, 2004; 김영아, 2004; 김준형 등, 1999)가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인문계, 농업계, 상업계,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생 순으로 높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었다(김은정, 2002). 그리고 학교유형이 자살생각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으나 거주 지역별로 읍면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시와 광역시에 비해 자살생각을 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도 있었다(허진석, 2007).

자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WHO에서는 자살이란 “자살 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Reynolds(1988)는 자살행동을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 의도, 시도 및 완료로 나누었다. 자살 사고는 일반적으로 자살하려는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

으로 옳기지 않은 경우를 일컫는다. 따라서 자살 사고가 반드시 자살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Rudd(1990)는 737명의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43%가 지난해 자살생각을 가졌는데 그 중 15%가 자살시도를 계획했고 6%가 실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Carlson과 Cantwell(1982)에 의하면 자살생각이 심각했던 사람의 42%와 자살 생각이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살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집단에서는 단 한명도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사고는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되므로 자살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자살시도를 예방할 수 있다(Simons & Murphy, 1995).

Beck(1967)은 우울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임상적으로 관찰하여, 우울증의 정서적인 증상보다는 인지적인 증상인 절망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자신이 개발한 우울척도, 절망척도, 그리고 자살 생각 척도 및 자살 의지척도를 사용하여 성인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울, 절망과 자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울감 보다는 절망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Beck의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지지되었다(Cole, 1988; Emery, Steer, & Beck, 1981; Minkoff, Bergman, & Beck, 1973; Petrie & Chamberlain, 1983; Weissman, Beck, & Kovacs, 1979; Wetzell, Margulies, Davis, & Karum, 1980). 그러나 Beck의 이론은 우울증 집단에게는 매우 적절하나 우울 이외의 임상집단이나 정상

집단에서 보이는 자살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러 연구를 통해 주장되었다.

Rudd(1990)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 우울, 절망, 사회적 지지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Beck의 연구와는 상반되게 우울이 절망보다 자살 생각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eynolds(1988)는 우울하지 않으면서 자살행위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특히 Shneidman(1987)은 청소년의 자살 행위는 정신 질환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Glaser(1981)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에서 임상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우울증이 관여된 경우는 10%미만이며, 충동성,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보복 등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불안정한 과도기에 있는 매우 불안한 시기이므로,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절망, 상실, 분노 등의 복잡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는 목적을 갖기도 하고(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촉발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발적으로 자살이 발생하기도 한다(김기환, 전명희, 2000). Blau와 Gullotta(1996)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자살생각을 할 때 정말 자기가 죽으려는 의도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행동을 통해 자신의 절망이나 희망의 상실,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자살은 삶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기보다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살 이론 중 Baumeister(1990)가 발표한 자

살 이론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이 이루고자하는 기대나 희망과 현실간의 괴리가 내적으로 귀인 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증을 초래하고 이 우울증이 인지적 몰락 상태를 유발하여 결국 자살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Baumeister의 이론은 앞에 제시된 자살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이론적 모델이라 생각된다.

Baumeister(1992)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이론화하고 자살에 이르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대치 혹은 기준이 너무 높거나, 실제 현실적인 상태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의 괴리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고, 둘째 기대상황과 현실상황 사이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를 내적으로 귀인 하여 자아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셋째 위의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의식화가 침체화되고, 자신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넷째 그로 인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상태(우울증)가 유발된다. 다섯째 개인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없애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갈구하게 되어, ‘인지적 몰락’ 상태가 유발된다. 인지적 몰락이란 정신기능의 협소화로서 모든 사상에 대해 의미부여를 거부하고 피상적이며, 무가치하게 지각 및 해석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자살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내적 억제력(예를 들어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 자기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 타인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을 약화시키는 기제가 되어, 결국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신과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수단으로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Baumeister(1992)는 전술한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한 고통스런 생각 및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 결과 초래된 인지적 몰락 상태는 자살 행위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성적 방종, 충동적 과식 등 다양한 자기 파괴적 행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Armand와 Leila(2011)가 자기도피이론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개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자살 실행과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며 자살을 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동기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Baumeister(1991)는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과거나 미래에 대해 혐오적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므로 현재의 순간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적 조망의 축소(shrinking of time perspective), 단순하고 즉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상에 대하여 의미부여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구체성(concreteness), 현재의 감각적인 경험과 단순하고 기계적인 일에만 주의 집중하는 장기적인 목표의 결여(absence of distal goal), 모든 것을 피상적이고 무가치적으로 생각하며 신체로부터 의미를 제거시키는 의미의 거부(rejection of meaning), 충동성은 증가되고 내적 억제력은 약화되는 탈억제(disinhibition),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게 되는 수동성(passivity) 및 무책임성, 의미의 거부를 통해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나 불안조차 보이지 않는 정서의 결여(lack of emotion), 삶을 의미 있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irrational thought) 등으로 기술하였으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여러 연구(Iga, 1971; Shneidman, 1987; Bhagat, 1976; Diener & Wallbom, 1976; Linehan, Camper,

Chiles, Strosahl, & Shearin, 1987; William & Broadbent, 1986; Bonner & Rich, 1987)에서 보고되었다. 인지적 몰락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경진(2003)의 연구에서 인지적 몰락이 심리적 특성 중 자살 사고를 설명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소영(1998)의 연구에서도 자살욕구와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인 현실도피, 수동적 삶의 자세, 현실안주 중에서 수동적 삶의 자세가 자살욕구 예측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과 오경자(1933)의 연구에서도 우울은 비행과 관련이 있었으나 이는 인지적 몰락을 매개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Baumeister(1992)의 이론은 절망요인,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 이외 여러 가지 단기적 위험요인과 자살간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우울증 환자 집단뿐 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 및 임상 집단에서 보이는 자살욕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자의식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자의식의 증가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부여, 내적 귀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도취적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좌절이 발생하면 자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여기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평가적 기준과 커다란 모순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평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을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끈다. 따라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갈구하게 되며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는 합리적 사고

나 단계적 문제해결의 방법을 활용하기 보다는 강력하고 빠른 수단으로 생각이나 의식 수준을 낮추어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인지적 몰락'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은 자신,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도식을 강조한 Beck의 이론보다 성인에 비해 인지적이고 미성숙하고 확고한 부정적 도식을 아직 발달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 집단에게는 Baumeister의 인지적 몰락의 개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앞서 제시한 청소년 자살의 형태가 충동성, 남을 조종하고자하는 의도, 보복의 의미이거나(Glaser, 1981), 자신의 절망, 상실, 분노 등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는 행위(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죽으려는 의도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려는 방법(Blau & Gullotta, 1996)이라는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자살 문제는 자살 사고와 관련된 시점부터 예방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자살사고는 성인의 원인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는 자살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우울뿐만 아니라 무망감, 절망, 인지적 왜해 등과 같은 자살 위험요인을 발생시키고(김은정, 2002; 임숙빈, 2002; 홍영수, 2004; 황영순, 2003), 스트레스 중에서도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이나 사회적 적응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Lazarus & Folkman, 1984; 임숙빈, 2002). 학교계열에 따른 자살사고 연구에서는 인문계, 농업계, 상업계, 남녀공학 인문계 순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김은정, 2002)도 있었지만 실업계열이 자살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강은실 등, 2004; 김영아, 2004; 김준형 등, 1999). 그러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희, 2007).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고 우울은 자살사과를 일으켜 자살위험성을 높인다는 많은 결과(Allgood-Merten, Lewinsohn & Hopes, 1990)에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계열 간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하여 어느 계열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 차이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비교를 통해 양적인 부분은 알 수 있었지만 계열 간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사과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인지 발달을 완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요인, 이외 여러 가지 단기적 위험 요인과 자살간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설명가능 할 뿐 아니라, 자살 행위에 대하여 인과적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Baumeister의 자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 청소년 자살 연구는 Baumeister의 이론 보다 Beck의 이론을 적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Baumeister의 이론을 적용한 경우도 자살욕구는 Beck의 이론을 활용하거나, 연구대상이 대학생 대상이었으며, 청소년의 폭식행동과 약물남용에 대한 연구(양소영, 1998; 류승현, 2010; 김희영, 1998; 박수진, 1993)로 이루어져 인지적 몰락을 적용한 청소년 자살사과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중 자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스트레스 중에서 심리적 건강과 상관이 높은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자살사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살연구에 활발히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에 다소 부족하게 적용된 인지적 몰락을 이용하여 자살사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을 유발하게 만드는 생활스트레스의 차이와 생활스트레스의 차이가 인지적 몰락 상태의 내용에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학교계열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대해 자살예방교육과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스트레스와 인지적 몰락은 자살사과와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2. 고교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과 간의 관계를 인지적 몰락이 매개할 것이다.
3. 매개모형은 학교계열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4. 학교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을 유발하는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다를 것이다.
5. 학교계열에 따라 자살사과를 유발하는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이 다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조사연구는 전라북도 내 4개시의 8개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입시를 앞둔 3학년의 경우 협조를 얻기가 어려워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총 92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3명을 제외시켜 856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남학생은 320명(37.4%), 여학생은 536명(62.6%)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459명(53.6%), 2학년은 397명(46.4%)이었다. 학교 계열은 인문계 294명(34.3%), 실업계 319명(37.3%), 예술계 243명(28.4%)이었다.

#### 측정 도구

##### 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김교헌과 전경구(1993)가 제어이론에 근거하여 만든 청소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이다. 문항은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 영역의 가족관계 9문항, 동성친구관계 9문항, 이성친구관계 10문항, 교사와의 관계 10문항과 당면과제 스트레스 하위 영역의 학업문제 10문항, 오락 여가문제 9문항,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8문항, 일상생활문제 9문항을 포함한 총 7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당면과제 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90, .89였으며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93이었다.

##### 진로스트레스 척도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Shepherd, 1996)을 황성원(1997)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질문지를 류미화(2002)가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진로결정 스트레스를 측정할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문항은 일반적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10문항과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5문항을 포함한 총 1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요인과 가정환경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의 신뢰도계

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4, .69였으며 전체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자기도피척도

인지적 몰락을 측정하는 도구로 자기도피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신민섭(1992)이 Baumeister가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로 개념화하여 자살 행위의 핵심적 기제로 “인지적 몰락”을 이론적 모델로만 제시되었던 개념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한 자기보고형 척도로 인지적 몰락상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7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양소영(1998)이 하위영역을 분류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문항은 하위영역 현실도피 24문항, 수동적 삶의 자세 26문항, 현실안주 21문항을 포함한 7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3, .88, .83이었으며 전체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94였다.

##### 자살사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Reynolds(1998)의 자살사고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신민섭(1992)이 번안하였으며 개인의 자살사고의 수준을 측정하는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병금(2006)이 변형하여 사용한 14문항 7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살사고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95였다.

#####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계열에 따라 주요변수의 하위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AMOS 5.0을 이용하여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락의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매개모형이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위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계열에 대해서는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인문계가 가장 높았으나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의 평균은 실업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 결 과

###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평균차이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들인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에 대해 t-test, one-way ANOVA 방법을 사용하여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및 유의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

###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측정 변인들 간에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과 자살사고 간에는  $p < .01$  수준에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 보다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이 자살사고와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명	남(n=320)	여(n=536)	전체(n=856)	t	df
생활스트레스	142.3(26.3)	147.3(24.7)	145.5(25.4)	-2.81	
인지적 몰락	89.5(13.7)	90.2(12.6)	89.9(13.0)	-.81	855
자살사고	24.6(16.3)	25.0(13.5)	24.8(14.6)	-.31	

주. ( )의 수치는 표준편차

표 2. 학교계열에 따른 주요 변인 간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계열	인문계 (n=294)	실업계 (n=319)	예술계 (n=243)	전체 (n=856)	F	df
생활스트레스	151.6(23.7)	143.1(25.8)	141.1(25.5)	145.5(25.4)	13.67***	
인지적 몰락	87.9(12.1)	91.6(13.9)	90.2(12.6)	89.9(13.0)	6.11**	855
자살사고	24.1(13.1)	26.5(17.1)	23.6(12.3)	24.8(14.6)	3.32*	

주. ( )의 수치는 표준편차, \*\*\* $p < .001$ , \*\* $p < .01$ , \* $p < .05$

표 3.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및 자살사고의 상관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425**	1												
3	.391**	.459**	1											
4	.366**	.352**	.374**	1										
5	.376**	.358**	.295**	.450**	1									
6	.408**	.375**	.375**	.346**	.519**	1								
7	.374**	.377**	.398**	.507**	.437**	.459**	1							
8	.367**	.396**	.332**	.351**	.510**	.495**	.504**	1						
9	.305**	.322**	.233**	.295**	.567**	.417**	.384**	.411**	1					
10	.361**	.248**	.292**	.284**	.475**	.373**	.381**	.336**	.570**	1				
11	.285**	.207**	.222**	.222**	.295**	.284**	.253**	.278**	.232**	.301**	1			
12	.365**	.392**	.308**	.280**	.352**	.333**	.321**	.376**	.341**	.376**	.741**	1		
13	.292**	.257**	.226**	.204**	.230**	.247**	.195**	.252**	.159**	.232**	.682**	.726**	1	
14	.309**	.248**	.244**	.199**	.195**	.196**	.199**	.248**	.149**	.227**	.408**	.598**	.572**	1

주. \*\* $p < .01$

1. 가족스트레스 2. 동성친구스트레스 3. 이성친구스트레스 4. 교사스트레스 5. 학업스트레스 6. 오락여가스트레스 7. 일상생활스트레스 8. 건강신체스트레스 9.진로일반요인스트레스 10. 진로가정환경요인스트레스 11. 현실도피 12. 수동적인 삶의 자세 13. 현실안주 14. 자살사고

### 매개모형 검증

####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3개의 잠재변인(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을 가진 측정모형을 검증하는데 18개의 측정변인들이 선택되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각 수치는 RMSEA 값은 .05 이하면 좋은 적합도 .05에서 .08사이면 적합한 적합도이며 .10 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이다.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그 결과는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했고( $\chi^2=510.214$   $df=84$ , CFI=.935, NFI=.923, TLI=.918, RMSEA=0.77(90% 신뢰구간.071~.084)),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측정 변인들의 요인 값은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각각의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설모형 검증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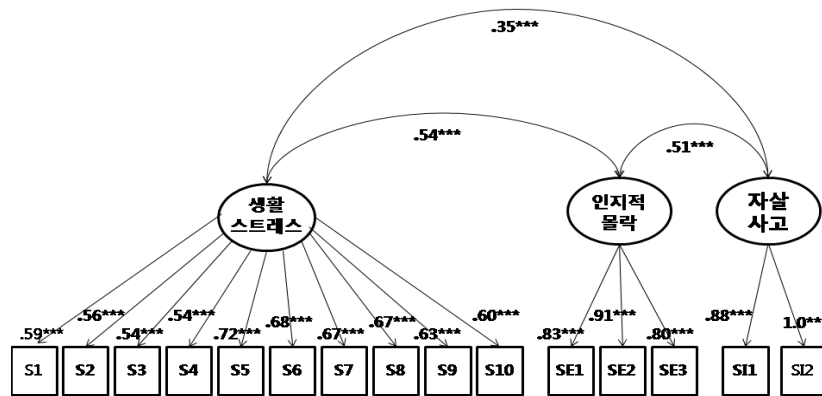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표 4. 측정모형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NFI	TLI	RMSEA (90%신뢰구간)
구조모형	510.214	84	.935	.923	.918	.077(.071~.084)

\*\*\* $p < .001$

에 인지적 몰락이 완전매개하는 완전매개 모형과 생활스트레스에서 자살사고로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매개 모형을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정된 연구 모형( $\chi^2=55.536$ , CFI=.928, NFI=.916, TLI=.911, RMSEA=.080(90% 신뢰구간.074~.087))과 경쟁모형( $\chi^2 = 552.052$ , CFI=.928, NFI=.917, TLI=.910, RMSEA=.081(90% 신뢰구간.074~.087))을 검증

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차이검증을 통해 가설검증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Delta\chi^2(1, N=855) = 0.484, p > .05$ ), 연구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채택하였다. 또한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완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부분매개 모형에서는 생활스트레

표 5. 매개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2$	df	CFI	NFI	TLI	RMSEA (90%신뢰구간)	$\Delta\chi^2$
연구모형	552.536	85	.928	.916	.911	.080 (.074~.087)	0.484
경쟁모형	552.052	84	.928	.917	.910	.081 (.074~.087)	

스에서 자살사고로 직접 이어지는 경로에서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부터는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데, 앞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설정한다. 또한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문계, 실업계 및 예술계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동일화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과 기저 모형 간의  $\chi^2$  차이검증을 통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한다(홍세희, 2001). 기저모형(모형 1)과 측정동일성 모형(모형 2)의  $\chi^2$ 의 차이가  $\Delta\chi^2(2)=0.369$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적합도 지수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모형이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구조동일성 검증

구조동일성 검증은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에서 주어진 제약 외에 절편이 동일하다는 제약이 필요하다.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하면 모형의 적합도는 떨어진다(홍세희, 2001). 표 6을 참고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구조동일성 모형의  $\chi^2$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Delta\chi^2(15, N=856) = 42.315, p < .001$ 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chi^2$  검증과 마찬가지로  $\chi^2$  차이검증도 표본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홍세희 등(2005)의 기준에 따라 RMSEA와 TLI를 고려하였다. RMSEA와 TL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이기 때문에 구조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지수가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에

표 6.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계열별)

	$\chi^2$	df	CFI	NFI	TLI	RMSEA
모형 1: 형태동일성(기저 모형)	756.281	255	.924	.890	.906	.048
모형 2: 측정 동일화 제약 모형	756.650	257	.924	.890	.907	.048
모형 3: 구조 동일화 제약 모형	798.965	272	.920	.884	.907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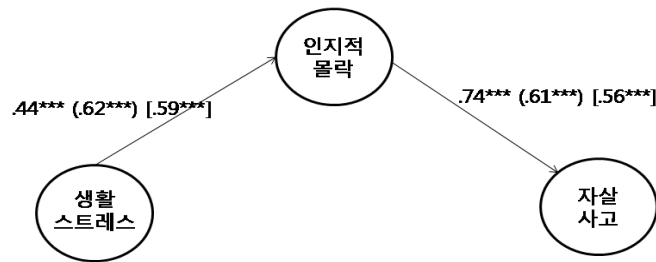
표 7. 학교계열에 따른 매개모형 구조동일성 검증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NFI	TLI	RMSEA	$\Delta\chi^2$
인문계	연구모형	261.818	83	.913	.877	.892	.084	0.112
	경쟁모형	261.706	82	.912	.877	.890	.085	
실업계	연구모형	254.298	86	.939	.912	.926	.078	0.400
	경쟁모형	253.898	85	.939	.912	.925	.079	
예술계	연구모형	231.740	87	.918	.876	.901	.083	2.192
	경쟁모형	229.548	86	.919	.878	.901	.083	

비해 나빠지지 않으면 제약은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6에 제시된 값을 살펴보면 RMSEA의 경우 모형 2는 .048이고 모형 3 또한 .048로 동일한 값을 보였으며 TLI의 경우도 모형 2, 모형 3 모두 .907로 동일한 값을 보였다. 즉, 구조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의 구조가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각 계열별 모형 간  $\chi^2$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문계 집단은  $\Delta\chi^2(1)=0.112$ 를 보였고 실업계 집단은  $\Delta\chi^2(1)=0.400$ , 예술계 집단은  $\Delta\chi^2(1)=2.192$ 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세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세 집단은 자유도가 1 큰 연구모형이 동일성을 만족시키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그림 2와 표 8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생활



주. \*\*\* $p < .001$ , ( )실업계, [ ]예술계.

그림 2. 학교계열별 매개모형

표 8. 학교계열별 매개효과 검증

경로	Bootstrap Estimate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s	S.E.	lower 95%	upper 95%		
인문계	a	1.03(.44)***	.18	0.73	1.77	
	b	1.35(.74)***	.12	1.09	1.94	
직접 효과	실업계	a	1.78(.62)***	.23	1.38	2.32
		b	1.16(.61)***	.11	0.96	1.46
	예술계	a	1.42(.59)***	.19	1.13	1.88
		b	.71(.56)***	.10	0.42	1.00
간접 효과	인문계	a*b	1.40(.32)**	.33	0.81	2.16
	실업계	a*b	2.06(.38)**	.30	1.50	2.62
	예술계	a*b	1.00(.33)**	.24	0.59	1.61

주. \*\*\* $p < .001$ . \*\* $p < .01$ . ( )는 표준화된 계수임.

a. 생활스트레스→인지적몰락, b. 인지적몰락→자살사과, a\*b. 생활스트레스→인지적몰락→자살사과.

스트레스가 인지적 몰락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계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eta=.44/.62/.59, p < .001$ ), 인지적 몰락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모든 계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74/.61/.56, p < .001$ ). 즉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인지적 몰락이 모든 계열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교계열별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인지적 몰락에 미치는 영향

학교계열에 따라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인지적 몰락을 유발시키는 주요 하위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계열에 따라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인지적 몰락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df=855,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t=6.27^{***}$ ), 동성친구 관계 스트레스( $t=3.77^{***}$ ), 가족관계 스트레스( $t=3.29^{***}$ )이며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beta=.33, SE=.26$ ), 동성친구관계 스트레스( $\beta=.20, SE=.18$ ), 가족관계 스트레스( $\beta=.19, SE=.21$ ) 순으로 인지적 몰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계는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인지적 몰락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df=855,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학업문제 스트레스( $t=4.99^{***}$ ),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 $t=2.81^{**}$ ),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스트레스( $t=3.30^{***}$ ), 가족관계 스트레스( $t=2.13^*$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업문제 스트레스( $\beta=.28, SE=.18$ ),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스트레스( $\beta=.19, SE=.25$ ),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 $\beta=.16, SE=.23$ ), 가족관계 스트레스( $\beta=.12, SE=.21$ ) 순으로 인지적 몰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술계열의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인지적 몰락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df=855,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학업문제 스트레스( $t=2.27^*$ ), 동성친구 관계스트레스( $t=2.42^*$ ),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t=2.74^{**}$ ),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스트레스( $t=2.23^*$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가정환경 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beta=.18, SE=.34$ ), 학업문제 스트레스( $\beta=.17, SE=.21$ ),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스트레스( $\beta=.16, SE=.28$ ), 동성친구 관계스트레스( $\beta=.15, SE=.23$ ) 순으로 인지적 몰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학교계열별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학교계열에 따라 자살사고를 형성하게 만드는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 중 자살사고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df=855,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 $t=15.33^{***}$ ), 현실안주( $t=13.33^{***}$ ), 현실도피( $t=8.33^{***}$ )이며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수동적인 삶의 자세( $\beta=.67, SE=.10$ ), 현실안주( $\beta=.62, SE=.18$ ), 현실

도피( $\beta=.44$ ,  $SE=.16$ )의 순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계는  $df=855$ ,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현실안주( $t=13.78^{***}$ ), 수동적인 삶의 자세( $t=13.5^{***}$ ), 현실도피( $t=8.23^{***}$ )이며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현실안주( $\beta=.61$ ,  $SE=.18$ ), 수동적인 삶의 자세( $\beta=.60$ ,  $SE=.12$ ), 현실도피( $\beta=.42$ ,  $SE=.18$ )의 순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술계의 경우  $df=855$ ,  $p < .05$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 $t=9.58^{***}$ ), 현실안주( $t=7.15^{***}$ ), 현실도피( $t=5.82^{***}$ )이며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수동적인 삶의 자세( $\beta=.53$ ,  $SE=.12$ ), 현실안주( $\beta=.42$ ,  $SE=.22$ ), 현실도피( $\beta=.35$ ,  $SE=.15$ )의 순으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인지적 몰락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을 발생시키는 생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몰락의 하위 요인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를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및 유의관계를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

사고에서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으나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학교계열에 따른 생활스트레스의 평균은 인문계>실업계>예술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몰락의 경우는 실업계>예술계>인문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사고는 실업계>인문계>예술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이영희, 2007) 자살위험성은 실업계열 고등학생이 인문계열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하는 선행연구(강은실 등, 2004; 김영아, 2004; 김준형 등, 1999)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열 학생이 스트레스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실업계 학생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황양순, 2008; 오선향, 2002)를 통해 실업계 학생들이 스트레스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 변인인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변인들이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 중에서 인지적 몰락의 하위 요인들이 자살사고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들이 그 뒤를 이었다.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사고보다 인지적 몰락에 대해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모형 검증에서도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인지적 몰락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지과정이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한다는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과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보다 자살사고를 형성하게 만드는 자살 위험 요인을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김은정, 2002; 임숙빈, 2002). 즉 스트레스의 수준

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인지적 몰락 상태에 빠지게 되고 자살사고가 유발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을 통해 부정적 스트레스 상황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자살 예방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인지적 몰락 모형이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에 기초한 모형을 각 계열별 집단에 적용하여 비교하고 변인들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열에 따라 구분된 인문계, 실업계, 예술계 집단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인지적 몰락이 완전매개하는 과정에서 계열에 따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지적 몰락이 자살사고에 완전매개하는 결과는 자살사고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생들의 특성이 Baumeister가 제시한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은 현재 중심적이고, 일상생활과 자신에 대한 의미부여를 부정하고, 장기 목표가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회피, 충동성, 정서결여 및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의 제거, 인지 재구조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법보다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Baumeister(1991)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4가지 기본 욕구(목적감, 가치감, 효능감, 자기가치감)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활용하여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목표 세우기, 목표달성을 위한 경로 찾기 과정을 통해 희망 갖기 및 좌절 속에서 밝은 면을 찾아보게 하고, 풍요로움을 상상하는 일,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게 하는 방법과 일상의 삶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들로 채워진 삶의 모든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도록 하여 삶의 의미 획득 및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행동과 자각이 통합되도록 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함께 몰입을 경험하도록 하여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을 유발하게 하는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생활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인지적 몰락의 하위 요인 중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인문계의 경우 가정환경요인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동성친구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3가지 하위 요인이 인지적 몰락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적과 친구관련 문제가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며(박은영, 1995), 친구 관계나 학교 선생님과 관계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로 결정과 진로 계획 시에도 부모를 진로 관련 정보원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연구(김동민 등, 2003)와 대학 진학이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부모의 견해나 소망에 다소 의존적인 것이라는(김상혁, 2001) 연구결과가 지지한다. 한편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또래집단이나 교사와의 관



계에서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비행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생각이나 행동까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전영주 등, 2000), 본 연구에서 인문계열은 대부분 남고와 여고에서 설문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실업계의 경우 학업문제 스트레스, 건강 및 신체발육 스트레스,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4가지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인지적 몰락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계열선택의 요인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성적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실업계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장은경, 2000), 실업계 학생들 역시 전문대 이상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대다수라고 하였다(김정관, 2004). 또한 인문계 학생에 비해 외모만족도는 낮고 외모 콤플렉스는 더 높으며(서윤경, 2003; 이아영, 2007) 이성교제와 스킨십도 실업계 학생들이 훨씬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문환, 1993). 또한 실업계 학생의 가정은 일반계 학생 가정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나(장현숙, 2001) 인문계 학생보다 여가 시간이 많아 이 시간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다(김정관, 2004). 즉,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면서 여가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 여가생활을 건강하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의 경우 가정환경에 의한 진로스트레스, 학업문제 스트레스, 건강 및 발육문제스트레스, 동성친구 관계스트레스 순으로 4가지 생활스트레스 하위 요인이 인지적 몰락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예술계 고등학생들이 조기 진로결정만큼이나 조기진로변경의 가능성이 높고(장경아, 2003), 수년간 훈련을 지속하다가 신체적인 조건과 경제적 상황, 같이 훈련하는 여러 인간관계로 인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한다(이창섭 등, 2006). 예술계 학생의 부모는 전공 연습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노시운, 2009) 예술계 학생도 대학진학의 이유로 학력 위주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하고 있다(김현미, 1993). 또한 인문계 학생에 비해 자신의 외모 특히 얼굴과 하반신에 유의한 수준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준선, 2006), 예술계 학생들 중 다수가 기숙사 생활과 실기 연습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패턴이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생각된다.

각 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을 유발시키는 생활스트레스 주요 요인에 따라 예방 및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겠다. 인문계의 경우 객관적인 진로 정보 제공과 함께 부모와 진로 불일치로 경험할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부정적 정서 다루기 및 진로 결정에 대한 주도성을 상실하여 경험할 수 있는 무기력에 대한 접근과 함께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계의 경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접근이 선행된 후 진로상담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야 하며, 다른 계열에 비해 이성문제나 성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조기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자신의 외모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수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계열에 비해 학습 시간 이외에 연습하는 시간까지 또래들과 어울리지 때문에 친구관계 스트레스 대처법 교육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이 계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문계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현실안주>현실도피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는 현실안주>수동적인 삶의 자세>현실도피, 예술계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현실안주>현실도피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실업계열의 현실안주와 수동적인 삶의 자세에서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즉,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지적 몰락 하위요인 중 수동적인 삶의 자세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는 양소영(1998)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나 계열에 따라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의 순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에 인지적 몰락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는 상호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인지적 몰락요인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살사고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청소년 자살관련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몰락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둘째,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

간의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경로가 추가된 부분매개보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사고를 인지적 몰락이 매개하는 완전매개 모형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매개모형은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계열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위험요인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몰락이라는 자살위험요인을 유발시키는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을 계열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로 인해 계열에 따라 인지적 몰락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있으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몰락의 하위요인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사고의 근원이 되는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이나 강조되어야 할 영역은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정서를 활용하는 기법 등은 계열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각 시·도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선발(내신 성적에 의한 선발), 선발고사에 의한 선발, 그리고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 선발(초·중등교육법시행령 82조 2항, 개정 1999.2.27) 중 선택 시행하고 있어 이 결과를 전체 대상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가 진행된 전라북도의 경우 인문계 선발 기준이 선발시험

(180점)과 내신 성적(70점)을 합한 총점 250점 만점으로(전라북도 교육청, 2011), 전북 평준화 지역 기준 160~1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문계를 진학할 수 있다. 학교 선정에 있어서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비평준화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계열구분 기준을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몰락, 자살사고 등의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검사 태도 중 바람직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의 영향을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 보고 형식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Baumeister에 의하면 인지적 몰락 상태는 자살사고를 형성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자살을 억제하는 요인들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자살사고 형성을 억제하는 요인들로는 행복, 감사, 몰입, 삶의 의미, 희망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인지적 몰락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개입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요인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과 인지적 몰락에 대한 상관을 보거나 동시에 활용한 국내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몰락이 어떠한 긍정적 정서 요인을 가장 많이 제거하는지, 또는 어떠한 긍정적 정서 요인이 인지적 몰락을 벗어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를 포함하여 인지적 몰락을 변인으로 한 국내의 몇 안 되는 연구들도 자살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Baumeister는 인지적 몰락 상태는 자살행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성적 방종, 충동적 과식 등 다양한 자기 파괴적 행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알코올 및 약물, 기타 행위 중독 및 섭식장애 등과 인지적 몰락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199.
- 고재홍, 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이동복지학*, 9, 127-128.
-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08-120.
- 김동민,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2003). 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청소년상담 문제 연구보고서* 48, 19-58.
- 김문환 (1993).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혁 (2001). 고등학생의 지역 및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 (2004). 고등학생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2).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관 (2004).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신뢰의식, 스트레스, 사회풍토지각 및 일탈행동 차이 분석.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오경자 (1993).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55-66.
- 김준형, 김봉준, 장동원 (1999).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및 자아상에 관한 연구-실업계·인문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2), 220-235.
- 김현미 (1993). 예술계 고등학교 무용학습지도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1998). 다이어트를 하는 여고생집단에서 완벽주의성향과 다이어트실패 경험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몰락을 매개로 하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시운 (2009). 예술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요인과 전공 만족도 관련 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미화 (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승현 (2010).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적몰락, 반추적 반응양식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금 (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 (1993). 인지적몰락과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 (1995).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기독교, 비기독교 고등학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윤경 (2003).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자존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소영 (1998). 청소년기의 인지적 몰락 및 이상-현실 괴리와 자살욕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향 (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선유 (1999).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 (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연 (2000). 청소년 자살위험사정모델. 교육이론과 실천, 10(2), 449-464.
- 이아영 (2007). 청소년의 외모복잡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7). 인문계 고교생과 실업계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방식 비교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7). 중학생의 댄스스포츠 참여가 정서와 여가활동 만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4). 스트레스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섭, 채지훈, 이명휘 (2006). 무용전공 여대생의 중도탈락 원인과 중도탈락 이후의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85-200.
- 임숙빈 (2002). 자살을 생각한 고등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과 대응행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2), 254-264.
- 장경아 (2003).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화가 진로 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 (2000).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 (2001).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교육청 (2011). 2012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전준선 (2006).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통계청 (2010). 2009년 사망원인 통계.
- 허진석 (2007). 학교 유형과 심리적 환경이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초와 응용. 미발간 워크샵 교재.
- 홍세희, 황매향,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양순 (2008). 일반고·전문고·특수목적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순 (2003).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정과 학교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e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55-63.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mand, C., & Leila, S. (2011). When self-destructive thoughts flash through the mind: failure to meet standards affects the accessibility of suicide-rela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587-60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The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1992). *Escaping The Self*. Basic Books.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hagat, M. (1976). The Spouse of Attempted Suicide: A Personality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44-46.
- Blau, G. M., & Gullotta, T. P. (1996).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 Bonner, R. L. & Rich. A. R (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me Preliminary Data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7, 50-63.
- Carlson, G. A., & Cantwell, D. P. (1982).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361-368.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2, 1279-1291.
- Cole, D. A. (1988). Hopelessness, social desirability, depression, & Parasuicide in two college sam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31-136.
- Diener, E., & Wallbom, M. (1976). Effect of Self Awareness on Antinormative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0, 107-111.
- Emery, G. D., Steer, R. A., & Beck, A. T. (1981).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ntent among heroin addic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16, 425-429.
- Glaser, K. (1981). Psychopathologic Patterns in Depresse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68-382.
- Hirsch, J., & Ellis, J. B. (1996). Difference in life stress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college suicide ideators and non-ideators. *College Student Journal*, 30, 377-386.
- Iga, M. (1971). A Concept of Anomie and Suicide of Japanese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 232-24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nehan, M. M., Camper, P., Chiles, J. A., Strosahl, K., & Shearin, E. (1987).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nd Parasuicid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1-12.
- Minkoff, K., Bergman, E., Beck, A. T., & Beck, R. (197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ttempted suicid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0, 455-459.
- Petrie, K., & Chamberlain, K. (1983).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s moderator variables in predicting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485-487.
- Pillay, A. L., & Wassenaar, D. R. (1997). Recent stressors and family satisfaction in suicidal adolescents in South Africa. *Journal of Adolescence*, 20, 156-162.

- Portzky, G., Audenaert, K., & Heeringen, K. (2005). Suicide among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0(5)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udd, M.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0.
- Sandin, B., Chorot, P., Santed, M. A., Valiente, R. M., & Joiner, T. E. (1998). Negative life event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 critical analysis fro the stress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21, 415-426.
- Shneidman, E. S. (1987). At the point of no return. *Psychology Today*, 3, 55-58.
- Shepherd, M., Cooper, B., Brown, A. C., & Kalton, G. W. (1996). *Psychiatric illness o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imons, R. L., & Murphy, P. I. (1995). Sex difference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423-434.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Weissman, A. N., Beck, A. T., & Kovacs, M. (1979). Drug abuse,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14, 451-464.
- Wetzel, R. D., Margulies, T., Davis, R., & Karum, E. (1980).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1, 159-160.
- William, J. M., & Broadbent, K. (1986). Autobiographical Memory in suicide Attemo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44-149.
- 원 고 접 수 일 : 2011. 4. 2  
수정원고접수일 : 2011. 6. 30  
게 재 결 정 일 : 2011. 8. 11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Life Stress,  
and School Type in High School Student**

**Choi, A Ron**

**Lee, Young So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deconstruction on the association. Eight hundred fifty five high school students (i.e., 294 academic high school, 319 vocational high school, and 243 arts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or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Correlational analyse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investigate those relations. Findings in the study showed that life stress and cognitive deconstru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Second, cognitive deconstruc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ird, sub-factors of life stress which lead to cognitive deconstruction varied according to the school typ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chool Type,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Cognitive Deconstruction